

해양·극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강화 위해 협력

- 해양·극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논의를 위한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협의회’ 발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19일(금) 해양·극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협의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해양환경공단 등

최근 해수면·해수온 상승의 가속화로 연안 침수·침식 피해 및 해양생태계 교란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난 10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제정된 바 있다.

해양·극지 분야 기후변화의 경우, 그간 유관기관들이 해수면, 해수온, 해양 생태계 등 감시·예측 정보를 개별적으로 생산하여 제공해 왔으나, 더욱 체계적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보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2024. 10. 25.)에 대비하고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통해 해양·극지의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협의회에서는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를 통해 기후변화를 철저히 관찰·예측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책임자	팀장 서은정 (044-200-6267)
		담당자	사무관 양지영 (044-200-6268)